

청년 취업자 1년새 7만명 줄었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2년도 채안돼

53세에 퇴직 ... 평균 20년8개월 근무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미만 이 52.1%(228만1천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2년 미만 11.4%(49만9천 명), 2~3년 미만 5.3%(23만2천명), 3년 이상 9%(39만3천명) 등 4명 중 1명은 1년 이상의 장기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장기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근로 취업경험자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0개월로 지난해 대비 1개월 감소했다. 첫 직장 근속기간은 1~2년 미만이 24.1%(105만8천명)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이 20.4%(89만6천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20년8개월 근무=고령층의 취업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생애 가장 오래 몸담은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20년 8개월을 근무한 후 53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에서 현재 직장을 갖고 있거나 취업경험이 있는 835만6천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20년8개월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3년3개월로 여자의 18년2개월보다 5년1개월 길었다.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이미 퇴직한 588만7천명의 경우 평균 53세에 해당 직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조사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남자의 이직 연령이 만 53세로 여자보다 3년 높았다.

▷“돈 때문에 일 더해야”=고령층의 57.1%는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취업을 원하는 배경으로는 돈(31.2%), 일하는 즐거움(19.8%) 등을 거론했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74.1%로 가장 많았고 희망 임금수준은 월평균 50만~100만원 미만이 34.8%로 우위를 점했다. /연합뉴스

증시 외국인 돌아왔다

34일만에 순매수 ... 코스피 1600 탈환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인 34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온 가운데 3주 만에 1,600선을 탈환했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4.38포인트(2.16%) 오른 1,626.14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1,600선을 회복한 것은 증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606.54 이후 3주 만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34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 1,600 탈환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날 외국인 증권시장 마감 기준 2천6억원의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기관도 1천150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개인은 2천715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은 6천798억원의 순매수를 기록, 증시 상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123달러 급락

두바이유 배럴당 5달러 이상 떨어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달러 넘게 급락하면서 123달러대로 내렸다. 2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5.43달러 하락한 123.5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배럴당 3.98달러 급락한 124.44달러를 기록했고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4.26달러 급락한 125.29달러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소득세 경감”

여,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득세 부과기준인 현 4단계 소득구간 중 1단계인 1천2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적용세율을 인하하고, 1천 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7%에서 16%로 1%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3단계인 4천 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과 같은 26%의 세율을 유지하고, 4단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6%로 1%포인트 인상토록 했다.

이 의원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

내는 지니계수, 계층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 가처분 소득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이성현 의원은 이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특별공제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가 있을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다른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해줄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돼 있지만 소득공제시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산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여름 침구&소품 인기상품전’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생활관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여름 침구&소품 인기상품전’을 진행한다. 운현궁 모시패드(7만5천원), 아사면으로 만든 라리아비스 아사누비이불(7만2천원), 천연 목화로 만든 방하트 워싱스프레드(3만9천원) 등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불황’여파 ... 보험 해약 크게 늘어

5개 생보사 올들어 60여만건 해약 ... 약관대출도 급증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을 올 들어 같은 기간에 113만1천989건, 1조6천58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 22.4%, 금액으로 25.9% 증가한 것이다.

보험상품은 가입 초기에 사립비 등 비용을 제외하는데다 실제로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장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1조7천788억5천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5월의 실적은 63만7천812건, 2조699억1천200만원으로 각각 5.2%, 16.5% 늘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제외한 10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해약실적도 지난해 1~5월 92만4천656건, 1조3천174억원(해약 환급금)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 113만1천989건, 1조6천58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 22.4%, 금액으로 25.9% 증가한 것이다.

보험상품은 가입 초기에 사립비 등 비용을 제외하는데다 실제로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장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1조7천788억5천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5월의 실적은 63만7천812건, 2조699억1천200만원으로 각각 5.2%, 16.5% 늘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제외한 10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해약실적도 지난해 1~5월 92만4천656건, 1조3천174억원(해약 환급금)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 113만1천989건, 1조6천58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 22.4%, 금액으로 25.9% 증가한 것이다.

보험상품은 가입 초기에 사립비 등 비용을 제외하는데다 실제로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장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1조7천788억5천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5월의 실적은 63만7천812건, 2조699억1천200만원으로 각각 5.2%, 16.5% 늘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제외한 10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해약실적도 지난해 1~5월 92만4천656건, 1조3천174억원(해약 환급금)이었으나

고물가 시대 소비패턴 ... 3천여명 설문

車 연료비·외식비 줄이고

육아·운동 비용은 안줄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은 차량 연료비를 가장 많이 절약하는 반면 자기개발이나 육아비용은 마지막 까지 줄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회원 3천877명을 상대로 고물가 시대 소비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물가·고유가 때문에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분야’로 ‘차량 운행용 기름값’을 꼽은 응답자가 28.2%로 가장 많았다.

‘술값·회식비 등 외식비용’을 가장 많이 줄였다는 응답이 21.6%로 2위에 올랐고 ‘식재료·생필품 등 장바구니 비용’(14.7%),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 생활요금’(10.7%), ‘영화·공연관람료 등 문화비’(7.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물가가 올라도 줄일 수 없는 지출항목에 대해 ‘운동·영어공부 등 자기개발비’라고 답한 응답자가 22.2%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교육비’(18.9%), ‘한우나 유기농 채소 등 좋은 식재료’(14.4%), ‘영화·공연관람료 등 문화비’(9.0%), ‘커피·술·담배 등 기호품’(8.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는 ‘자기개발비’(30%)를, 30대는 ‘육아·교육비’(25%)를 각각 가장 줄일 수 없는 항목 1순위로 꼽았다. /연합뉴스

305개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 1억

역시 ‘신의 직장’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일부 공기업 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 대해 24일 제출한 공기업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연봉이 5천만원(2007년 결산기준)을 넘는 곳이 171개(56%)에 달했다.

랭킹 1위를 차지한 증권예탁결제원 직원의 연평균 보수는 9천677만원으로 1억원에 근접했다.

이 기관 직원은 한해 기본급 4천269만원에 고경수당 3천39만원, 실적수당 883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781만원, 기타성과상여금 704만원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2위인 한국산업은행이 9천296만원, 3위 코스콤이 9천185만원으로 나란히 9천만원대를 기록했다.

그 뒤를 산은캐피탈(8천917만원), 금융감독원(8천784만원), 한국전기연구원(8천736만원), 중소기업은행(8천484만원), 한국수출입은행(8천461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8천93만원) 등이 이었다. /연합뉴스

고환을 정책, 원유수입비용 2조 추가부담

민주당 의원 주장

새 정부 출범 이후 고환을정책으로 2조3000억원의 원유수입비용이 추가 부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민생안전대책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2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3월(달러당 979.86원)부터 지난 6월(달러당 1천29.27원)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총 43조9천800

억원이 원유 수입비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 환율(달러당 944.69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같은 기간 원유수입비용은 41조9천500억원에 불과했다. 환율이 오르면 새 원유를 수입하는데 2조3000억원이 더 들어간 셈이다.

더욱이 올해 초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 등 각종 경제기관들이 예상한 2008년도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인 달러당 910원이 유지됐다면 3조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경하이테크	품질팀 문서 사무보조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6	062-956-8453
호남축판(주)	[광주사무소]정규직 총무팀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7	062-419-8171
㈜우리	수행 비서 및 자기용(BMW7) 운전업무 담당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7/29	062-361-7106
㈜우이	여성의류 소품류 뽀아에서 촬영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224-2282
ING생명(본사)	본사고객상담원(주간/연급)저속상품/주5일	고졸/경력무관	4000~4200	07/30	02-3452-2612
휴먼전자(주)	회계 및 경리직 경력직(남,여 사원)	고졸/경력2년	2000~2200	07/31	062-600-7522
연희정보통신	나이스체크 a/s점수, 상담, 사무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511-0099
하니로아시아	월드지니어 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31	070-7667-8070
(유)로켓트	귀뚜라미 보일러 a/s기사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8/01	062-363-9000
㈜대광건설	토목(도로 및 교량) 시공 기술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8/01	062-360-9342
㈜한국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8/04	062-369-0790
쿠루복광주서비스센터	출장 A/S 정규직 사원 모집 // 경력자우대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8/04	019-613-3579
주노커피코리아	주노커피코리아 소속 비리디(광주)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5	062-573-0410